

“재벌 호위무사 김앤장 해체하라”

17일,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증거인멸 지시, 재판 연기, 교섭 지연 등 노조파괴 법률자문 자행해

민주노총이 여러 투쟁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위한 법률자문을 자행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를 “재벌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 본사 앞에서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의 노조파괴, 정리해고 법률자문 실태를 폭로했다.

이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김앤장은 2014년 10월 갑을오토텍, 노무법인 예지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노조파괴 공작

을 짰다.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는 2015년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을 앞두고 갑을오토텍에 노조파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7년 동안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했는데 유성기업 사건 중 대법원 판결 난 사건이 없다. 김앤장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현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김앤장이 2004년 외환카드 정리해고 당시 문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문자해고가 일상화했다.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 178명

도 문자해고 당했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김앤장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김앤장 노조파괴 피해사업장을 중심으로 법률단체, 시민단체 등과 김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0월 25일 김앤장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한상균 총연맹 위원장, “2기 직선 출마 않고 중립 지킨다”

16일 민주노총, 옥중서신 발표... “조합원·국민과 박근혜 퇴진·노동개악 저지 두 가지 목표 모두 이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직선 2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0월 16일 발표한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서신에 따르면 “저는 2기 직선 집행부 선거를 앞

두고, 어떤 특정 후보의 입장에서거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1기 직선 위원장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첫 직선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운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저지 등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 조합원동지들과 국민에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한국지엠 정상화 나서라”

한국지엠지부,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 대책 촉구... “장기 발전 전망, 비토권 유지 등 협약 체결해야”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글로벌지엠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10월 16일 끝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아래 지부)는 10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 전망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민중당)은 10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하청업체 노동자 30만 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지엠이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라 구조조



정, 물량감소를 강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엠에 대해 견제나 경영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비토권 협약이 끝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감사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에 이어 한국지엠 2대 주주(지분 17.02%)이고, 글로벌지엠과 2010년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을 체결하며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을 보유했음에도 글로벌지엠의 협약 불이행

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지엠은 2002년 대우자동차 매각 당시 체결한 협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부는 “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라며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 전망 마련과 비토권 유지를 위해 글로벌지엠과 새로운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지엠 정상화에 직접 나서달라”며 “다시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한국지엠과 금속노동자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쌍용자동차지부, 다시 복직 투쟁 나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복직 여력 충분, 12월 인도 원정투쟁 간다”

쌍용자동차가 2015년 12월 30일 합의한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아래 지부)가 해고자 우선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지부는 10월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고자 복직을 위해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면

담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한 명씩 선임해 복직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부와 쌍용자동차가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단계 복직을 합의했지만, 2017년 10월 현재 해고자 167명 중 37명(22%)만 복직한 상태다.

지부는 “생산량, 판매량 증대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라며

“1라인, 3라인 노동강도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고, 교대제를 개편하면 현재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추가 고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평택공장, 최종식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부는 오는 12월 1일 마힌드라 본사가 있는 인도로 원정투쟁을 떠난다.